

광주 대광여고 통학로에 컨테이너...통행 불편·안전 위협

정문에 설치 왕복 2차선 중 한 차선 차지...차량양방향 운행 불가 개발업체 매입 부지에 통학로 일부 포함...이사회 "방안 모색 중"

학교법인 흥복학원 산하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에 컨테이너가 설치돼 학생 통행 불편을 물론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남구 주월동 대광여자고등학교 정문에는 약 3m 폭의 컨테이너가 세워져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차지했다.

이에 양방향 차량 통행이 어려운 데다, 서진여고 통학로 방향에서 불과 10m 남짓 떨어진 담벼락에 지주막 공사로 인한 안전망까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등하곶길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등굣길에 만난 한 학생은 "최근 생긴 컨테이너로 인해 급식 차량 등이 올라오지 못하면 도시락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며 "다행히 한 차선에만 컨테이너가 있어 일방향 차량 통행이 되고 있지만, 두 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몰릴 때는

언덕이 꽤 경사가 있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해당 통학로에 컨테이너가 설치된 것은 광주 한 개발업체가 지난 2016년 흥복학원 소유의 대광여고 앞 폐건물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지에 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 일부와 담벼락 등이 포함돼 이 부지를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9년 승소했고, 2022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등 가교환에 대해 '교환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안전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개발업체는 학교 측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통학로를 폐쇄하겠다고 예고했고, 학교 이사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광주시교육청에 공유했다.



학교법인 흥복학원 산하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에 최근 컨테이너가 설치돼 학생 통행 불편을 물론 안전 위협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언덕 경사가 꽤 있어 등하곶길 학생들이 몰릴 때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다이 기자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부교육감 주재로 통학로 관련 TF팀을 꾸려 14일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사립학교재산에 대해 제재할 마땅한

규정 근거가 없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흥복학원은 설립자가 1천억원대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로 구속 수감되면

서 지난 2015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한 뒤 법인 체제로 수년째 학교법인 재산 운영 결정 권한을 지닌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빛 갇으려고” 압수품 빼돌린 전직 경찰 ‘실형’

광주지법 해남지원, 징역 2년 선고

채무 변제 등을 위해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통합증거물보관실에 있던 현금 3천400여만 원을 1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지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인 현금 92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꾸민 뒤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기 계류 사건 점검 중 A씨의 범행을 확인, 지난 5월 파면 징계 처분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현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본분에도 형사사건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 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안재경 기자

5·18재단,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재산 환수 촉구

우원식 국회의원 만나 입법 요청

5·18기념재단은 19일 “광주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5·18진실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또 최근 전두환·노태우 일가가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의 전모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

조했다. 특히 재산 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22대 국회 동안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재산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퇴직 공직자 기관 대표이사 선임 부적절”

공무원노조 남구지부 논평...오늘 최종 임용자 결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구지역본부 남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 남구지부)가 ‘내정 의혹’을 받는 (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대표이사 후보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19일 내부 게시판에 논평을 올려 “퇴직한 지 1년이 막 지난 고위 공무원을 남구출연 기관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공직자 900여명의 우려스러운 마음을 안다면 즉각 대표이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는 도시재생·마을공동체 분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표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이 시작되기 전부터 퇴직 공무원 ‘내정설’이 구정 안팎으로 파다해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인물은 구정장의 최측근으

로 재직 시절 구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구청장의 독단적인 구정 운영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이전에 구청에서 재직했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다”며 “센터 설립과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대표이사 모집 공고에는 내정 의혹을 받는 이를 포함, 총 2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2차 면접을 마친 남구는 20일 최종 임용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성학 기자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한 친모 구속 기로

‘독박 육아’에서 온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했다는 친모가 구속 기로에 섰다.

19일 여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4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여주시

웅천동 자택에서 태어난 지 7개월여 된 자신의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집을 나온 A씨는 전날 오후 12시4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숨진 쌍둥이 자매는 자수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을 찾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

이 두 자매를 이불로 덮어 질식사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박 육아 등에서 온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쌍둥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 | |
|-----|---------------------------|
| 헤드 |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 | |
|-----|----------------------|
| 헤드 |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2g (±10g), 샤프트 50g |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 | |
|-----|---------------------------|
| 헤드 |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0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